

## 성에 관한 헌의

### 삶과 선교 에이전시 위원회

인간의 성에 관한 헌의 번호 4, 5, 15, 21, 23, 24, 26, 29, 30, 31, 32, 33, 35, 2015, 그리고 번호 13, 15, 21, 2016

#### 성경 고찰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필요하고 충분하며 의지할 만하고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신앙과 삶의 척도로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세상과 내적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말을 그것에 견주어 시험해 보아야 하는 모든 교리의 표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 하에서와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받고, 우리는 그것을 Living Faith (5.1)에서 확인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신앙의 주춧돌로 삼는 사람들로서, 비록 성경이 우리의 삶에 유일한 규칙이지만 우리가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이 그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동적이고 성령에 의해 계속적으로 조명됩니다(요한복음 16:12-15). 그것은 살아있는 잣대로서, 많은 세기 동안 믿는 자들이 해석해 왔으며 성령의 인도 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성경이 우리에게 간단하고 확정적이며 보편적인 대답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버려두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답을 찾아보고 그리하여, 비록 성경이 쉽고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는 않지만, 정말 풍부하고 복잡한 가르침과 진리의 보고임을 발견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축복적이고 선물입니다. 성경은 문헌집이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분별 과정에 대한 모델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 또는 가르침이 다른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들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역학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는, 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질문들을 했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결정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듯이 이 문제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성과 결혼에 대한 헌의를 복수의 기구에 보내어 답을 구한 것은, 이 질문을 교회 내의 여러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회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삶과 선교 에이전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의 문제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별 소수자(LGBTQ)인 사람들의 성과 그들에 대한 완전한 포용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와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도 하려고 합니다.

토의와 또 이 토의에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교회에 보내 준 피드백에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 동성애라는 주제 자체가 성경의 초점이 되는 일은 드뭅니다.

실은 동성애라는 주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성경 텍스트는 창세기 19:4-8, 사사기 19, 레위기 18:22 과 20:13, 로마서 1:26-27, 고린도전서 6:9-10, 디모데전서 1:9-10, 그렇게 일곱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텍스트들은 모두 동성 성행위를 언급하고 그런 행위를 정죄합니다. 교회의 회중들과 교회 법정들, 에이전시들과 대학들은 이 이슈를 연구하라는 총회의 지시를 받았고, 지난 30년 동안 이 이슈에 대해 많은 학문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자료는 언제든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경들을 하나씩 차례로 간략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창세기 19 장과 사사기 19 장은 그 도시의 이방인이었던 남자들을 공격하고 집단 강간을 자행하려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남자들을 강간하겠다는 요구에 대응하여,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범죄 대신에 젊은 여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하는 제의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 모두가 폭력에 대한 이야기이며, 특히 사사기의 이야기는 더욱 그러합니다.

레위기 18 장과 20 장은 성결법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18:22 에 있는 법은, 남자와 함께 눕는 남자는 가증하다고 진술합니다. 레위기 20:13 은 그런 행동이 가증스럽다는 진술을 반복한 후, 하나님께서 승인한 살인을 통해 그런 남자들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이 텍스트는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텍스트는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의 계명들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상의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같은 절(verse) 안에 있는 어떤 조항의 의향에 대해서는 어떤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 문화에서 우리 문화로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서도 같은 절 안에 있는 두 번째 조항에 있는 폭력은 무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야기합니다.

로마서 1:26-27 은 동성 성행위를 정죄하는 데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여자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유일한 텍스트입니다. 왜 다른 텍스트들은 여자들을 언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두 남자 사이의 성행위에 대해 다루는 텍스트는 섹스 혹은 섹스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 명예/수치, 그리고 그 텍스트가 발생되어 나온 문화 속에 들어 있는 성별 역할과 행동 수칙과 관련된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부분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필요하다는 그의 신학적 주장의 첫 번째 단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성교”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었다는 이 언급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며 우상 혹은 제의적 관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섹스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이해하는 데는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단어 연구와 역사비평적 조사를 해 보면, 이 텍스트에서 바울이 남색, 제의적 창녀제도 또는 로마 궁정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과도한 성적 욕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텍스트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직 동성인 두 사람 사이의 성적 끌림이나 활동으로만 해석을 제한하면, 우상숭배와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바울의 바울의 신랄하고 용감한 윤리적 견책의 중요성과 신학적 힘을 최소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9-10 과 디모데전서 1:9-10 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범법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에는 번역하기 힘든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리스어 용어가 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주요한 성경 번역들(the King James Version, the Good News Bible,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여자 같은 사람들, 또는 남창들, 또는 소돔 사람들, 또는 성도착자들과 번역되었습니다. 이 그리스어 용어들이 확대적인 성적 관계나 문화적 규율(예를 들어, 여자 같은 성품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용어들이 자신이 이해한 자신의 성을 자신과 동성인 어떤 사람과 서로 헌신된 관계 안에서 실현하며 사는 동성애자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이 일곱 곳의 텍스트들은 동성 관계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지금까지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이 학자들은 동성 관계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모순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텍스트들은 또한 동성 관계는 사람 사이의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학자들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번역과 엄격한 성경 비평을 통해 이러한 텍스트들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는 도덕적 잣대가 된다고 주장하는 장로교 학자들(예를 들어 Robert Gagnon)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운 번역과 엄격한 성경 비평을 통해 이러한 텍스트들은 고대 이스라엘과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사회 구성에 특이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반영하는 도덕적 잣대와 문화적 언급이라고 주장하는 장로교 학자들(예를 들어 Jack Rogers)도 있습니다. 두 그룹의 성경 학자들의 주장들은 모두 철저하고 신앙적이며 신실합니다. 그들의 해석의 차이는 고대 언어들(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어떻게 적절하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 상황의 사회적, 역사적, 종교적 맥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와 관련이 되는데,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상황과 그리스도 이후의 1 세기의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개혁 전통은 경건에 이르는 안내자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모토를 자주 사용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 없이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느낌이나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생각 둘 다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를 때에 지성과 성찰이라는 선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연구와 생각에서 나온 통찰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안내하게 하고, 개혁 전통은 잘 교육된 성직자와 교육된 평신도 둘 다를 강하게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법과 목회적 관행과 경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을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성경 비평 방법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충실하고

조심스럽게 고찰하는 성경 연구에 우리는 기대를 걸고 그것에 가치를 둡니다. 성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학자들과 가르치는 장로들의 충실한 작업은 매우 다르고 심지어 정반대인 결론들에 도달했습니다. 해석상의 이러한 다름은 정의 사역부(Justice Ministries)가 교회 전체에서 받은 피드백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의 사역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은 피드백에 이 일곱 텍스트들을 자주 언급하였고 다양한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교회 앞에 놓인 인간의 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텍스트들의 검토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없고 복잡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이해를 찾기 위해 성경 텍스트를 보다 깊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정 단어나 주제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주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만 하는 텍스트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교회 전체에 걸친 우리의 논의를 통해 장로교인들이 그 다른 텍스트들 중 다수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성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려는 다음 단계는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성경의 추가적인 텍스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토할 첫 텍스트들은 창세기 일장과 이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들은 교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인용하였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들 너머에는 그리고 이 이야기들 안에는 서로 다르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보완하는 시각과 목적을 가진 다수의 저자들과 편집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 학자들이 지적했을 때 장로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창조 이야기들이 창조에 대한 문자적이거나 과학적인 기록이 아니고, 특별히 인간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가리키는 기초적인 이야기들과 시적 표현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위한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보여주는 축약적인 텍스트들이어서, 비록 이 텍스트들에 성에 대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텍스트들이 주로 성 관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야기들이 인간의 성이라는 주제의 대화에 들어왔을 때 성경 학자들은 다양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학파는 창조 이야기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성이 있어야 한다는 성 윤리의 틀을 인식하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어떤 불변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는 결혼의 원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의 상보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학파는 창조 이야기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관계를 가질 깊은 필요가 있다는 지속적인 인식을 찾아냅니다. 이 두 번째 견해에서 창조 이야기는 주로 하나님과의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의 언약적 관계를 조명해주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관계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 관계에 신실하지 않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그 관계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이 견해에서는 그러한 언약적 관계를 동성 파트너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교회 앞에 놓인 인간의 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없고 복잡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이해를 찾기 위해 성경 텍스트를 보다 깊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이년 동안 동성 결혼에 관한 토론에서 장로교인들이 인용한 신약의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창조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 19:3-12; 마가복음 10:2-12; 누가복음 16:18). 이러한 텍스트들이 인용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 밖에서 결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들은 주로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화에 대한 모든 기록들에서 예수님은 이혼을 엄격히 그리고 확실하게 금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간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게다가 신약에서 이혼을 금지하는 모든 텍스트들에서는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도 금지됩니다.

이혼에 대한 이 대화의 배경으로, 예수님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불안정한 상황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리하여 여성이 매우 취약하고 종종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기존의 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해서 법의 적용을 보다 정의롭게 만드십니다.

인간 관계와 교회 내의 지도력에 대한 또 하나의 복잡한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캐나다장로교회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텍스트를 세련되고 신실한 방법으로 깊이 연구했습니다. 당시에 연구와 실천을 통해 교회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의 온전함과 충실함을 원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고 인간들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지만, 이혼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이 있으며 이것은 위에서 언급된 성경 텍스트에서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경우 교회는 이혼을 명백하게 금지하는 성경 텍스트를 연구하였고 인간 관계와 교회 내의 지도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하였습니다. 연구와 실천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이혼을 하여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재혼을 하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서 임명받은 지도력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지속할 수 있고, 총회에 임명될 수 있고, 총회장을 포함하여 교회의 어떤 직무를 위해서든 선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은 창조 이야기를 인용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특정 맥락에서 이혼을 금지하시지만, 21 세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별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1 세기에 특정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셨던 이 특정 대화 속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에서 율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데 대해서는 일정한 대답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긴 강화입니다. 이혼과 같은 일부 경우에,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고수하거나 더 엄격히 실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마태복음 5:31-32). 다른 경우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와 내적인 성품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율법을 확장하십니다(마태복음 5:21-30).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때를 포함하는 일부 경우들에서는, 어떤 사람의 치유와 건강과 풍성한 삶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예수님은 전면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체계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았고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다룬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의, 그리고 율법이 취약한 인간들을 다루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교회 앞에 놓인 인간의 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전승에서 온 개별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잡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지난 이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해 장로교인들이 토의하는 내내, 더 넓은 범위의 신약 문헌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신약 문헌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의 언어로 말하는 직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대한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가복음 2:19-20, 누가복음 5:34-35 마태복음 9:15).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언급합니다(요한복음 3:28-29). 결혼 잔치는 성취가 일어날 미래의 상징인데 이때에는 정의와 풍요의 때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 식사에 대한 언급(요한계시록 19:7)과 예루살렘을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로 언급(요한계시록 21:2, 9)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묵시 문학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에베소서 5:22-33 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는 직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아래에 있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자 지배자이며, 구원은 남편을 통해 아내에게로 온다는 결혼 관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상호성을 강조하는 등 자기 시대의 일부 사회 규범에 도전합니다. 캐나다장로교회는 바울의 궤적을 따라왔고 바울 자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여성의 평등을 뒷전으로 미루는 듯이 보이는 텍스트들을 다른 텍스트들과의 대화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28 에 나오는 고대의 세례시 축복 텍스트와의 대화인데, 이 텍스트에서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함으로써 캐나다장로교회는 이제 남자와 여자는 결혼에서, 그리고 교회 내의 지도력과 권위가 있는 직무들에서 평등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장로교회에서 현재 유효한

이 입장은 바울 서신의 가훈에 반영된 성별과 결혼에 대한 이해와는 대조가 되는 것으로서, 그런 이해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는) 직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일상 생활 속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맥락이 달라지면 직유도 다른 것을 사용해야, 그것이 의도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맥락 속에 있는 직유를 우리의 상황 속으로 가지고 올 때에는, 그 직유가 어떤 면에서 여전히 맞고 어떤 면에서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가 동등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고 하는 직유는 1 세기에 먹혔던 것처럼 21 세기에 먹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교회 앞에 놓인 인간의 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가훈이나 직유나 예시적 비유나 신약의 묵시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잡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2016 년 총회는 지혜롭게도 삶과 선교 에이전시(정의 사역부)와 교회 교리 위원회가 “교단 분열을 회피하고자 헌의 번호 4, 5, 6, 7, 8, 10, 11, 12, 14, 15, 16, 18, 19, 21, 23, 24, 26, 29, 30, 31, 32, 33, 35, 2015 에 대한 연구와 검토에 이 헌의들에 대한 선택으로 양면의 혹은 두 방향의 접근을 권면할 수 있는 허락으로서 로마서 14:1-3 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했습니다. (A&P 2016, p. 39) 로마서 14:1-13 은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주제와 맥락 모두가 이 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형성된 이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적인 관행을 확립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늘 있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그들의 노력은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길고 풍성하며 복잡한 신학적 주장들을 펼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각과 분석과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울의 신학적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3 장까지에서 바울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확정합니다. 5 장에서 바울은 죄인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6 장, 7 장, 8 장에서 바울은, 구속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과 길을 분별해 나갈 때에 내적 갈등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갈등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나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더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의 유대인 형제자매들과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맺어온 언약에 대한 존중에서, 바울은 9 장, 10 장, 11 장에서 구원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며 이제 은혜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12 장에서 이 책의 어조와 목적이 바뀝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바울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 보여집니다. 그의 어조에는 새롭고 명백한 긴급성이 들어 있습니다. 문장은 짧아지고 생각의 표현은 명료해집니다. 서신의 나머지 장들(12-16 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론에서 나온 실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일상 생활과 실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4 장에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섹션 한 가운데서, 바울은 음식과 영적 관행(명절)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1 세기에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숭배 및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관행에 대한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21 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보이듯이 그렇게 사소한 주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먹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불일치를 사용하여, 일상 생활의 관행에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른 결론들과 관행들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 마음 속에서 기도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신실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고 요청합니다(14:5). 그 후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결론을 내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더 크고 구속력이 있는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14:6).

캐나다장로교회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에 대한 논의의 빛에 비추어 불 결혼과 성직 임명의 문제는, 일상 생활과 관행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캐나다장로교회 안에서 결혼은 성례전이 아닙니다.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인간에 대한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이 반대인

파트너와 그 언약을 맺는지 아니면 동성인 파트너와 그 언약을 맺는지와 상관 없이 이것이 사실인지를 교회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교회 앞에 놓인 인간의 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 마음 속에서 기도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신실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된 신앙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는 수단을 성경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풍부하고 복잡한 가르침과 진리의 보고인데 비록 성경이 쉽고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지도력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에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인간의 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동성 결혼과 교회의 임명받은 지도력을 위해 교회 밖에서 동성간 결혼을 한 LGBTQ 사람들의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텍스트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동성 관계를 명백하게 언급하는 일곱 텍스트를 살펴보고 이 결정에 적절한 다른 텍스트들도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들 사이의 성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성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대해 말을 하거나 암시하는 성경의 다른 텍스트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텍스트들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응답은 모든 것을 다루지 않고 모든 것을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간의 관계와 교회 내의 지도력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 성경을 검토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단지 장과 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이며, 정적이거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그리고 그것 너머로의 움직임과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궤적 혹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복음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고 효력이 있는 은혜,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과 포용과 영적 은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풍성한 삶 쪽을 지속적으로 가리킵니다. 복음의 방향은 계속되는 통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기 그리스도에게 이끌렸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동방 박사들과 율법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포함된 이방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사회 주변부에 살던 사람들과 문둥병자들, 고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성결법을 지키지 못하던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자신과 자신의 교회로 불러 모으심에 따라 복음의 방향은 해방과 새로운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방향은 정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방향의 기원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지구 전체를 파괴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창세기 9:8-17), 인간을 정벌로써가 아니라 언약으로 다루기로 선택하십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개별 율법을 과격하게 다른 방법으로 다루시지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하나의 포괄적인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답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5-39). 그렇게 선택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40)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모든 해석들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앞세우십니다. 이것이 율법에 관한 그의 모든 다양한 가르침들이 수렴하는 점이고 그의 모든 행동들과 또 다른 계명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향하는 복음의 방향은,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통해 개별 법들을 해석하신다는 사실과 치유와 회복의 행동에서 외부에 있던 사람들을 대화의 중심으로 데리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됩니다.
- 수로보니게 여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쫓아 달라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원래 반응을 바꾸어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녀의 딸은 건강하게 됩니다(마태복음 15:21-28, 마가복음 7:24-30).

- 이방인들도 언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심에 따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을 계속하고 확장하도록 위임을 받습니다(사도행전 10:9-16).
- 바울이 상황이 다른 공동체들을 대할 때 바울도 자신의 사역에서 복음의 궤적을 확장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하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13)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동일한 포용에 대해 말하는데 이번에는 민족과 계급이라는 범주에 성별/성을 추가함으로써 그 포용을 확장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공동체 안에서 질문이 제기될 때에 바울은 은혜의 궤적을 따라 포용을 확장합니다.

캐나다장로교회는 바로 이 동일한 복음의 궤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과는 다른 관행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845 년에 캐나다장로교회 노회(Presbyterian Church of Canada Synod)는 코부르크에서 만나서 노예제도를 정죄하였고, 그 관행에 대한 반대를 미국의 장로교회(옛날)에 전달했습니다. 이 결정은 구약과 신약의 일부 구절들에서 허용되는 관행에서 떠나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일부 인용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르게 지시할지라도, 1966 년에 캐나다장로교회는 장로와 장로교회 당회의 구성원이라는 지도력과 사역에 여성을 임명하고 축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총회는 또한 성령께서 여성을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에 임명하라고 교회를 부르시는 것을 분별하였는데, 이는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도력을 제한하는 성경의 일부 구절들과는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간, 이혼 및 교회 안에서 이혼한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이슈를 가지고도 교단이 고민해 왔습니다. 목회적 이유로 이제 교회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엄격히 고수하는 데 대한 예외를 허락하고, 이혼한 사람을 성찬에 받아들이는 관습을 수용하며, 이후의 재혼을 허락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와 그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서 중요한 지도력 직무에 이혼한 사람을 선출하고 확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욕신되고 그의 설교를 통해 들리고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보이는 복음의 방향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향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밖의 당국자들에 의해 이미 수행되고 있는 동성 결혼을 사역자들이 축복하도록 허락하는 추가의 목회적 수용을 교회가 하도록 이 동일한 복음의 방향이 허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동성 결혼을 한 재능 있는 지도자들이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로 임명받아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응답할 수 있는 여지가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계시되고 그 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욕신되었으며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LGBTQ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그리고 더욱 완전히 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